

## 변화하는 통번역 환경에서 한국통번역사협회의 역할에 대한 고찰\*

이준호(중앙대학교)

### 1. 서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통역과 번역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통번역을 업으로 삼는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내 직업인 통번역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 나의 직업군인 통번역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에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떠오르는 질문은 너무나도 많고 해당 질문을 추려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다. 혼자 스스로 답을 하려고 해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생성형 AI에 질문해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통번역 시장의 변화라는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사회학의 틀을 빌려와 통찰을 시도한다. 본래 사회학의 목표가 사회 구조를 연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번역학계에서 사용되었던 사회학 이론을 빌려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구조화 및 단순화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본 연구가 가능하게 안내해 주신 고려대학교 이영훈 교수님과 번역사회학연구회 선생님들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사회학 전문가가 아닌 번역학 연구자가 수많은 사회학 이론을 검토하고 적절한 이론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번역학회 산하 번역사회학연구회에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뎀(Pym, 2022)은 사회학자인 루만(Luhmann)의 체계이론을 언급하며 통역의 체계(interpretation system)가 존재하는지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통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논하며 통역에는 아직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가 아니더라도 의사와 변호사는 전문가 직군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통번역 직군은 그렇지 못하다는 논의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를 사회학적으로 서술하자면 의사나 변호사는 전문 직군으로서의 체계가 존재하며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 작용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번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현상과 한계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의 영향도와 해결책의 탐구이다. 이에 다음의 질문을 던지며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의 부재가 통번역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면 체계 형성을 위해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변화를 실천할 주체가 필수적인데 그 역할을 수행할 합리적 주체는 과연 누구이고 해당 주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기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을 빌려와 현재 통번역계가 맞이한 문제를 해석하고, 통번역의 전문성 형성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여 해결책의 실마리를 파악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변화를 수행할 주체로는 통번역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통번역사협회(Korean Association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이하 KATI)를 설정하고 지난 6년간 KATI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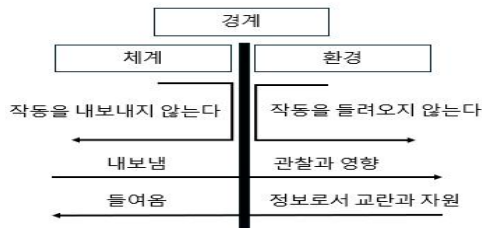
## 2. 이론적 배경

### 2.1 루만의 이론과 통번역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은 사회, 정치, 경제, 법,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는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체계(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루만은 체계이론을 다양한 의미와 분석 수준을 포괄하는 총칭 개념으로 제안했다. 시스템의 전제 조건으로 자기참조적 시스템(self-referential systems)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환경과의 관계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Luhmann, 1995). 이처럼 자칫 모호해 보이는 루만의 체계이론은 체계와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체계는 우리가 속해 있거나 관심을 가지는 특정 영역을 의미하며 본 논문의 맥락에서는 통번역 분야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환경은 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체계와 환경 사이에는 경계가 있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루만의 체계이론 재구성 (Berghaus, 2012, p.80)



루만의 체계이론을 설명한 이철(2010)에 따르면 체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식과 기술(description)이 필요하다. 즉, 루만은 현실에 대한 모든 기술은 관찰자의 구분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달리 설명하자면 체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 구조화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체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는 자기생산(auto-poiesis)을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체계는 환경과의 경계를 통해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는 자체적인 논리에 따라 작동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상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체계로 인식되고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루만의 이론은 사회 구조 전체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논의의 범주가 방대하다. 이러한 거대 사회학 이론을 통번역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선행 조사가 필수적이다. 먼저, 해당 이론이 학문적 논의의 틀로서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통번역학의 이론적·실증적 연구에 적용할 학문적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며 기존 연구에서 해당 이론이 활용된 사례가 존재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루만은 여전히 국제 학술지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학자이며 그의 이론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2025년 KCI 홈페이지 검색 기준 루만의 이론을 다룬 연구가 100건 이상 존재한다. 하지만 번역학 분야에서 그의 이론을 적용한 분석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번역학에 새로운 사회학적 이론적 틀을 도입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당 연구 수행에 있어 이론적 방법론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루만의 이론을 번역학에 적용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장 대표적으로 틀레네프(Tyulenev)는 2009년 저술에서 루만의 체계이론을 활용하여 번역을 독립적 체계, 하위 체계, 그리고 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담론을 연결하는 역할로 구분하며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후 그는 2012년 『Applying Luhmann to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in Society』라는 단행본을 출간하며 루만의 이론을 번역학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허먼스(Hermans, 2007) 역시 루만의 체계이론이 포괄하는 범위와 깊이를 언급하며 번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기능주의 번역학자인 페어메어(Vermeer, 2006) 역시 번역 행위가 전체 번역 체계 내에서 하나의 독립적 체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며 루만의 이론을 차용하였다.

이처럼 루만의 체계이론은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고 번역이라는 개념과 실천의 설명을 위해서 사용되었기에 체계이론이 번역학 현상을 이

해하고 설명하기에 부적절한 이론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활용의 빈도가 높지는 않으며 체계이론의 특성상 체계이론만을 활용하여 본고의 주제인 통번역사협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에는 일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루만이 제시한 자기생산 개념이 통번역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본 연구에서 이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통번역을 독립된 체계로 간주할 것인지 혹은 다른 사회 시스템의 하위 체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체계가 고유한 경계를 형성하고 자기생산을 수행한다는 점은, 해당 체계가 일정한 기능과 효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외부 환경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체계가 이분법적 코드 등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Tyulenev, 2010). 예를 들어, 법체계는 '합법'과 '불법'이라는 명확한 이분법적 코드를 통해 작동하며, 사회 내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번역학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코드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만이 언급하는 경계는 사회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지 적어도 루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위적 노력으로 인해 형성이 가능한 대상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루만의 체계이론이 통번역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통번역이 하나의 체계로 인정받지 못하면 통번역을 체계로 인식하고 기술하는 행위는 중단될 것이다. 그 결과 통번역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희미해지고 그 정체성을 잃을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통번역이 독립된 체계 혹은 적어도 자율적인 하위 체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요구되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핵심 개념인 '경계'에 주목하며 이를 중심으로 기존 통번역 연구를 고찰하고 무엇이 통번역의 경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문화된 체계 구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2.2 경계와 전문화에 대한 연구

프랑스의 철학자 드마지에르(Demazière, 2024)는 전문화와 경계를 다룬 저술에서 루만과 마찬가지로 경계를 외부와의 단절 및 구분의 속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문과 다리와 같은 연결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직업의 전문화란 직업 집단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고 조율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계를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했으며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꾸준한 활동이 없다면 전문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번역학계에서도 통번역 분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번역을 비전문가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직군 형성하려는 경계와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다수 이뤄졌으며 이러한 연구는 통번역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학적으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그르비치(Grbić, 2010)는 기어린(Gieryn, 1999)의 경계작업 개념을 차용하여 통역의 전문화에 대해 논의했다. 경계작업이란 전략적인 실천적 행동으로(Gieryn, 1999, p. 23),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과 전략을 의미한다. 그는 경계작업을 번역 및 통역에 대한 전문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유용한 개념으로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On the one hand, boundary work generates positive feelings of similarity and group membership, while, on the other hand, it constitutes an inherent means of excluding others. Boundary work plays a critical role in constructing “identities,” in attaining status, and in determining what we notice and what we ignore, whom we include and whom we exclude.

(Grbić, 2010, pp. 109-110)

경계작업은 유사성과 집단 소속감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를 배제하는 본질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경계작업은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고, 지위를 획득하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무시할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의 MTPE)

이는 경계를 설정하여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루만의 이론에서 언급하는 ‘환경과의 경계’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관점은 통번역의 전문화 과정을 포괄적 문헌 연구를 통해 분류하고 전문화의 공통적 요건을 언급한 두 편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먼저 쿠야매키(Kujamäki, 2023)는 전문화의 공통 요소로서 전문화된 인력(professionalised workforce)이 필요하며 인력 전문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문 지식 적용에 대한 통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자격 인증과 같은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 내부에서 규범을 통한 이념적 강도가 전문협회 및 교육을 통해 형성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적 정체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상호 전문성 인정 및 고객의 전문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다. 두 번째 공통 요소는 서비스의 개인화(customization)이다. 그는 고객의 요건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정도가 전문성의 척도라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공통 요소는 지식의 강도(knowledge intensity)로 전문화된 지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전문성 판단의 척도라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공통 요소는 거버넌스 및 고객의 영향력(governance and client capture)이다. 그는 거버넌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수단 및 목적에 대한 통제성을 의미하며 고객의 영향력은 고객이 서비스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전문화된 서비스일수록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 해석하였다.

술라이만 등(Sulaiman et al., 2024)은 문헌 검토를 통해 전문화의 모델을 특성 모델(trait model), 통제 모델(control model), 그리고 신호 전달 접근(signaling approach)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특성 모델은 직업의 전문화가 해당 직업의 특성을 충족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평가 절차(인증, 자격증), 공식 훈련을 통해 구축된 지식 체계, 윤리 강령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통제 모델은 전문화가 시장 내 권력관계로 형성된다고 본다. 즉,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 체계, 교육·훈련, 윤리 강령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근무 조건, 시장 표준, 고객과의 관계 등의 외부 요소까지도 통제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신호 전달 접근은 의료나 법률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통제하는 방식과는 차별점을 둔다. 대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신호 체계(competence-signaling mechanisms)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전문성의 여섯 가지 측면으로 지위(status), 신호 장치(signaling device), 자격증 제도(certification), 제도적 개입(institutional intervention), 모범 업무에 대한 원칙(principles of good practice),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이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통번역이 하나의 체계로 인정받기 위한 경계 설정의 필요성과 경계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화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치칭하는 용어가 다르고 연구의 주제가 포괄적이지 않을 뿐 경계 설정의 필요성과 전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다. 협회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김지은, 2022), 인증제를 위한 논의(김혜림과 장애리, 2019; 박지영 2016), 인증 시험에 대한 상세 요건 분석(정연일 2006; 최경희 2020), 윤리 교육에 대한 고찰(정철자, 2020), 연구의 범위를 좁혀 사법 통역 등에 대한 전문화를 고찰한 연구(김진아 등, 2009; 이유진 2019)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 하겠다. 특히 이유진(2019)의 연구는 증(Tseng, 1992)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화 모델을 활용, 사법통역 전문화를 체계적으로 고찰했으며 전문협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번역 업계의 전문화와 경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종합한 체계적 논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통번역의 학문적 및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상기 연구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국내 통번역 업계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협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경계 설정과 전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행동의 주체는 교육 기관과 전문가 협회이다. 국내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변화 속에서 통·번역대학원의 교육 방향 및 커리큘럼 개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문가 협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가 협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기술적 변화나 도전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업계 및 대중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Tseng, 1992, p. 43).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 주체로서 통번역사 협회의 역할을 설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협회의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만약 특정 국가기관이 존재하거나 중국의 TAC(Translators Association of China)처럼 전국을 아우르는 강력한 협회가 있다면 협회의 정통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또한, 호주처럼 통번역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기관(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이 있다면 협회의 정당성 구현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모든 통번역사가 인정하는 단일 협회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에서 운영되는 통번역 자격증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시험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 통번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인증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박지영, 2016).

하지만 국내 통번역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통번역 협회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먼저 독립성이다. 통번역 협회는 정부 기관의 공식 인증을 받은 비영리 조직이어야 하며, 특정 사기업이나 영리 기관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협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둘째, 전문성이다. 국내 통번역 업계의 전문성은 통번역대학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

서 통번역 협회는 통번역대학원의 교수진 및 졸업자가 주축이 되어 구성됨으로써 학문적 기반을 갖춘 실무적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표준화된 통번역 교육, 연구, 인증제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셋째, 윤리 및 직업적 복지 강화이다. 통번역 협회는 단순히 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통번역사의 권익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통번역 업무에 대한 올바른 규범 설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KATI는 상기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KATI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수들의 발의로 2007년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지난 17년 동안 국내 통번역 전문가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KATI의 입회 기본 요건은 통번역 석사학위 취득이며, 임원진은 모두 현직 통번역사 또는 통번역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KATI가 실무적 학술적 전문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KATI는 지난 6년간 윤리 헌장을 발표하고, 노무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는 협회가 단순한 친목 단체의 역할을 넘어 업계 내에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통번역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KATI는 중립성, 전문성, 윤리 및 직업적 복지 강화라는 대표성 요건을 충족하는 협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KATI의 활동을 경계 설정과 전문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KATI의 6대, 7대, 8대 이사진의 활동을 분석한다. 각 이사진의 임기는 2년이며, 분석 대상이 된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다. 구체적인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KATI의 공식 메일 공지, 홈페이지 공지, SNS 공지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4. 분석 결과 및 논의

분석의 기초 작업으로서 6대, 7대, 8대 이사진의 활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협회의 운영 방식과 주요 활동의 흐

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6년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회비 인하 및 자동이체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번역 실천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 역시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외 협력을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이 통번역 커뮤니티 내부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본 장에서는 각 이사진의 주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기 언급된 장단점과 슬라이만 등 (Sulaiman et al., 2024)이 제시한 전문성 확보의 요소인 지위(status), 신호 장치(signaling device), 자격증 제도(certification), 제도적 개입(institutional intervention), 모범 업무에 대한 원칙(principles of good practice),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의 측면에서 협회의 노력, 한계, 보완점을 논의한다.

#### 4.1 6대 이사진 (2019–2020)

2019년 6대 이사진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회원 접근성 확대였다. 가장 먼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입회비 및 연회비 절감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잠재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노력하였다.

6대 이사진의 핵심 사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례로 사기업과 협업하여 기계번역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힘썼다. 특히, 2016년 신경망 기계번역(NMT)의 등장 이후 기계번역 후처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회원 간의 네트워킹과 함께 이뤄졌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설계되었다기보다는 다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격리가 본격화되면서 대면 행사의 개최가 어려워졌고 통번역 시장 역시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6대 이사회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회비를 추가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통번역사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요구 사항을 파악

하고 더욱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봄 정기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동시통역 환경, 화상회의 통역, AI 기반 통역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여 당시 회원들에게 생소했던 온라인 회의 환경에 대한 이해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원격 통역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문 업체와 협업하여 작성한 후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했을 때 협회가 학계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증(Tseng, 1992)의 협회 역할론을 실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6대 이사진은 외부 업체와 협력하여 기계번역 및 컴퓨터보조번역(CAT)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최신 번역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업계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세무 업체와의 협업 및 번역 도구 단체 구매를 추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 재무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종합하자면, 6대 이사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혜택을 확대하고, 회원 기반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회의 확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번역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기계번역 후처리 및 원격 통역과 같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 점은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회원 지원을 강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연회비 인하,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원격 통역 가이드라인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회원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협회의 위기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대외적 소통을 많이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경계 설정과 전문화의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큰 노력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격 통역에 대한 제도적 개입은 일부 시도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하나의 규범으로 완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통번역사의 지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조치

가 부족했다는 점과 모범적 업무에 대한 원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 4.2 7대 이사진 (2021-2022)

제6대 이사진이 확장의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7대 이사진은 도약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악재 속에서도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정밀하게 실행함으로써 협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대 이사진은 취임과 동시에 ACE 전략을 도입하여 기술 발전을 활용한 통번역사의 경쟁력 강화(Augment),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음성인식 등 새로운 기술의 한계를 보완(Complement),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직군으로의 진출 영역 확대(Expand)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운영을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7대 이사진은 기존의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중심의 홍보 채널을 유튜브와 웹진으로 확장하여 회원 및 대중과 소통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협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비대면 행사가 대면 행사와 비교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모든 행사 중 가장 높은 회원 참여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 나아가 협회의 재정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자동이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회비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협회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2021년 7월 열린 1차 심포지엄에서 비언어적 소통 역량 연구 및 산업적 활용 방안 그리고 통번역사의 진출 영역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심포지엄에는 200명 이상의 회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으며 피보팅(pivoting)의 개념을 적용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통번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고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개최된 휴먼 중심 기술 융합 세미나에서는 리스피킹(respeaking), 음성인식(ASR, STT) 기반 통번역 기술, 기계번역 후 편집(MTPE)의 적정 가격 체계, 원격 통역 기술 활용 사례,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와의 협업 사례 등을 통해 통번역사 역할 확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공유하였다.

이는 통번역 교육의 역할과 통번역사의 역량을 단순한 언어적 전환(language conversion)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맞춰 확장적으로 정의하려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통번역사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통번역사의 전문성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통번역사의 업무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대 이사진은 세무 및 노무 관련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에는 프리랜서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한 세무 강연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번 특강에서는 상근 통역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통번역사들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궁극적으로는 통번역사들이 주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경계 설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에는 디지털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해당 시리즈는 회원들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되었다. 에이전시와의 만남(업계 동향 세미나), 번역 기술 워크숍(Memsource, MemoQ 등), 노무 및 실무 세미나(통번역사 권리 보호), 통역 기술 워크숍(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활용 사례)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2022년에는 AIIC(국제회의통역사협회)의 윤리 강령을 포함한 다수의 윤리 강령을 참조하여 KATI의 윤리 강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초안은 여러 통번역대학원 교수자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회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기술 및 실무 교육을 넘어 통번역사의 직업윤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7대 이사진은 ACE 전략을 구체화하며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회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복

리후생 강화에 주력하였다. 다만 전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대외적 소통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경계 설정과 전문화의 관점에서 7대 이사진의 활동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리더십 아카데미, 세무 및 노무 특강, 번역·통역 기술 워크숍 등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에 이바지했다. 제도적 개입과 규범 정립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윤리 강령 초안을 마련하고 배포한 점은 모범 업무에 대한 원칙을 수립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6대 이사진과 마찬가지로 인증제도 도입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통번역사 지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 또한 부족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 4.3 8대 이사진 (2023-2024)

제8대 이사진은 7대 이사진이 구축한 회원 기반과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해체 이후 협회의 확대를 이어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8대 이사진은 통번역사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고자 NEST 전략을 수립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천명했다. 통번역사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네트워킹(Networking), 통번역사들의 전문성(Expertise), 통번역사들에 대한 지원(Support), 그리고 필요한 멘토링과 훈련(Training)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홍보 측면에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홍보팀을 강화하여 인스타그램 및 웹진의 콘텐츠를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회원 및 외부 독자들에게 협회의 활동과 업계 동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다. 재정 운영 역시 기존의 안정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인 회원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체계적 운영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협회의 행정적 효율성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네트워킹 측면에서 8대 이사진은 6대나 7대보다 더욱 강력한 통번역 업계 네트워킹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1월의 신년회,

2024년의 송년회 등 대규모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통번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두 행사에는 각각 143명, 180명의 신청이 이루어져 6대 이사진 시기의 대면 행사 대비 두 배 가까운 참가자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는 통번역사 간의 네트워킹 수요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협회의 결속력을 강화한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통번역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8대 이사진은 총 4회의 전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은 중재, IT, 법률, 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심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강의 수용 인원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회원 참여율을 기록하며 통번역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전문 강연 시리즈가 대부분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앞으로는 다양한 언어권의 통번역사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강연 언어 및 주제를 보다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통번역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대 이사진은 상근 통역사를 고용하는 기업과 협력하고 노무법인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대외 협력 성과를 달성한 시기였다. 이러한 노력은 통번역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을 지원하여 통역사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회원들이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외 소통과 협력에 있어 6대 혹은 7대 이사진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통번역사에게 필수적인 훈련 제공의 차원에서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멘토링, 스타일링에 대한 멘토링 등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선배 상근 및 프리랜서 통번역사들의 멘토링을 2023년 7월에 실시했으며, 번역 보조 도구에 대한 실습 훈련을 2023년 11월 실시하기도 하였다.

경계 설정과 전문화의 요건을 기준으로 8대 이사진의 활동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전문 강연 시리즈, 멘토링 프로그램, 번역 보조 도구 실습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회원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 지

원 및 모범적인 상근 통역사 고용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통번역사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 업무에 대한 제도적 개입과 규범 설정 측면에서는 한계가 남아 있다. 윤리 강령을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이를 더욱 발전 시키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6대와 7대 이사진과 마찬가지로 인증제도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4.4 종합 평가 및 논의

KATI의 6대, 7대, 8대 이사진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KATI의 회원 수는 증가했으며, 협회가 제공하는 재교육과 연계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꾸준히 참여하는 회원도 증가하였다. 요약하자면, 통번역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대내적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회원 교육 및 훈련, 복리후생 지원, 네트워킹 강화 등의 측면에서 성공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번역 업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가장 먼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인증제도가 여전히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한 한계로 지적된다. 물론, 통번역대학원의 졸업장이 사실상 공식적인 자격증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업계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통용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수의 민간 통번역 자격증 및 인증제도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통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업계 경계 설정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인증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은 업계의 전문성 확립에 있어 중요한 약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통번역 서비스 사용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공식적인 인증 없이 개별적인 경력과 학위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업계의 표준을 명확히 규정함에 있어, 그리고 통번역사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통번역사협회는 통번역대학원과 협력하여 가장 직관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KATI는 대외적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을 극복하고 적극적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체계가 인식되고 실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KATI의 활동은 주로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번역사 협회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협회 이사진이 주요 언론에 노출된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인지도 문제를 넘어 통번역사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업계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언론 노출 자체가 협회의 성공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업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통번역사의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협회는 더욱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공공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 언론 및 관련 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통번역사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계번역의 발전으로 인해 통번역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업계 내부와 외부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통번역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프랑스번역사협회(SFT)와 미국번역사협회(ATA)는 인공지능 및 기계번역의 활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기계번역의 발전 속에서 인간 번역사의 필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며 업계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KATI는 아직까지 AI 및 기계번역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통번역사의 가치와 역할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번역대학원과의 더욱 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업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내 통번역대학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대변할 수 있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학계와 업계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KATI는 통번역대학원의 정책 입안이 가능한 교수자들을 협회 임원으로 초빙하여 학계와 협회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번역 교육과 산업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며 업계와 학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통번역사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범 형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성이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 전문직 내부에서 형성된 규범을 통해 강화되는 이념적 구조이기도 하다. 즉, 통번역사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업계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규범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윤리 규범을 단순히 문서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행동이 업계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전문협회의 교육 과정과 모임에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범이 형성되어야만 상벌의 문화가 가능해지고 명확한 이분법적 코드가 직군 내에서 형성되면서 통번역사의 전문성의 경계가 더욱 날카롭게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통번역 업계에서는 규범 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나 윤리적 모범을 실천한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포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KATI는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통번역사의 고민을 대변하며 시작되었다. 통번역 업계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통번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체계, 경계, 환경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논의

를 전개하였다.

체계이론을 통번역의 미래에 적용해 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통번역은 하나의 체계로서 인식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대중이 AI를 마치 전지전능한 체계로 인식하는 시점에 통번역 업계는 더욱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통번역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하고 대체 가능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통번역의 전문성은 희미해지고 업계의 경계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번역 업계는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 체계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제2장에서는 통번역의 실천과 더욱 밀접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경계 작업과 전문화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결론은 명확하다. 경계 설정을 통해 차별화가 이루어지며 차별화와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 체계, 교육 및 훈련, 윤리, 노동시장, 근무 조건, 시장 표준, 자격증, 모범적 규범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문화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주체는 교육 기관과 전문가 협회이다. 교육 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문가 협회는 지식과 기술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업계의 윤리적 및 제도적 기준을 수립하고 통번역사의 사회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KATI를 중립성, 전문성, 정통성을 갖춘 통번역사 대표 기관으로 설정하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협회 활동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협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안하였다. 제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번역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업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연구 및 조사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안 그리고 주요 공공 기관, 언론 기관, 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대외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외적 입장 표명이라 하겠다. 셋째, 통번역 교육과 산업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며, 업계와 학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통번역대학원과 협회의 공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번역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번역 업무 규범을 명확히 정의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번역 협회인 KATI의 역할을 시간대별로 조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통번역사 협회를 분석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참신성을 가진 시도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통번역 실무, 교육, 기술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는 체계이론을 활용하여 협회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경계 설정과 전문화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협회의 향후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통번역대학원 교수자들이 협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보다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면 비록 작은 시도일지라도 본 연구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의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은 본 연구자의 한계임을 인정한다. 사회학적 이론을 보다 정밀하게 적용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향후 연구와 학습을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만약 본 연구에서 KATI 활동에 대한 기술 및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책임이며 향후 연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려 했으나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된 주장이 존재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 연구 과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증제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다수의 연구자가 지적했으며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협회에서도 시행이 어려웠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구체적 실천 방안은 협회와의 추후 공동 연구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협회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상세 분석이 있어야 하나의 체계를 아우르는 연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통번역 협회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연구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통번역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KATI의 건설적 발전을 위한 것이며 특정

이사진 활동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금 밝힌다. 운영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이사진의 헌신과 노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운영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필자 본인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지은. (2022). 한-중 통번역사 직업윤리 규정 비교 고찰—중국통번역협회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6(1), 1-20.
-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9). 전문사법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대책. 통번역학연구, 12(2), 125-144.
- 김혜림, 장애리. (2019). 전문통번역사 인증을 위한 평가체계 개발 제안. 번역학연구, 20(4), 31-56.
- 박지영. (2016). 국내 통번역 자격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번역학연구, 17(3), 33-59.
- 이유진. (2019). 사법통역 제도화에서 전문화로—사법통역인과 사법통역인 선정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3), 117-148.
- 이철. (2010). 루만의 자기생산 체계 개념과 그 사회이론사적 의의. 담론 201, 13(3), 81-106.
- 정연일. (2006). 번역능력인증시험의 맥락에서 살펴본 번역능력의 정의. 통번역학연구, 10(1), 1-15.
- 정철자. (2020). 국내 사법통번역 인증평가 사례연구: 윤리의식 평가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2), 203-227.
- 최경희. (2020). 통역사 인증시험 시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호주 나티 순차 통역 시험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183-213.
- Berghaus, M. (2012). 쉽게 읽는 루만 (이철 번역). 한울 아카데미.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Demazière, D. (2024). Professionalization: The Mystery of Boundaries. In D.

- Demazière & R. Wittorski (Eds.), *Encyclopedia of Professionalization: Organization of Professions, Production of Professionalities and Growth of Professionalism* (pp. 37-71). Wiley.
- Gieryn, T. F. (1999). *Cultural boundaries of science: Credibility on the lin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bić, N. (2010). "Boundary work" as a concept for studying professionalization processes in the interpreting field.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ssociation*, 5(1), 109-123.
- Hermans, T. (2007). *The conference of the tongues*. Routledge.
- Kujamäki, M. (2023). Translation as a professional service: An overview of a fragmented field of practice. *Perspectives*, 31(2), 331-346.
- Luhmann, N. (1995). *Social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 Pym, A. (2022). Who says who interprets? On the possible existence of an interpreter system. *The Translator*, 28(2), 162-177.
- Sulaiman, M. Z., Haroon, H., Zainudin, I. S., & Mohamad Yusoff, M. J. H. B. (2024). The professionalisation of translation practice: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32(2), 295-318.
- Tseng, J. (1992). *Interpreting as an emerging profession in Taiwan. A sociological model*. [Master's thesis, Fu Jen Catholic University]. The Fu Jen Catholic University Theses.
- Tyulenev, S. (2009). Why (not) Luhmann? On the applicability of social systems theory to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Studies*, 2(2), 147-162.
- Tyulenev, S. (2010). Is translation an autopoietic system?. *MonTI: Monografías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2, 345-371.
- Tyulenev, S. (2012). *Applying Luhmann to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in society*. Routledge.
- Vermeer, H. J. (2006). *Luhmann's "social systems" theory: Preliminary fragments for a theory of translation*. Frank & Timme GmbH.

## Examining the rol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an evolving landscape

**Junho Lee** (brandon4tni@cau.ac.kr)

Chung Ang University

### Abstract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shaping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dustry, compelling professionals to reassess the value and future of their work.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ystemic challenges facing the industry through the lens of Luhmann's systems theory. It addresses three central questions: (1) How does the lack of a structured system affect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professionals? (2) What measures are necessary to establish such a system? (3) Who should take the lead in implementing these changes? To explore these questions, the study examines the concepts of boundary work and the professionalization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t also considers the legitimacy of a professional association, identifying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KATI) as a pivotal actor in shaping the profession's future. Accordingly, a critical review of KATI's activities over the past six years was conducted based on the boundary work and professionalization. This review highlights four urgent priorities: (1) implementing a rigorous yet practical certification system, (2) enhancing KATI's external engagement through research and policy advocacy, (3) fostering stronger collaboration with graduate program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4) reinforcing ethical standards and professional norms. With these suggestions,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future dialogue on the role of KATI and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ield.

**Keywords:** System theory; interpretation; translation; professionalization; association

**키워드:** 시스템 이론, 통역, 번역, 전문화, 협회

이준호(<https://orcid.org/0000-0003-0397-6829>)

중앙대학교 전문통번역학과 조교수

brandon4tni@cau.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4월 27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6월 15일